

# 도심서 괴성 ‘철이’ 꺼안을 방법 없나?

### 정신질환 의심자 활보... 사회적 약자인데 시민에게 공포 대상 광주시·구청 외면...복지단체 ‘심리치료 등 체계적 관리 필요’

■1.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상가 밀집지역.  
180cm대 키에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이 갑자기 ‘괴성’을 질러댔다.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별명은 ‘철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충장로에 나타난 ‘철이’는 상인들 사이에선 유명 인사지만, 소꿉친구엔 ‘공포의 대상’이다.

30대 미만 젊은층은 이 남성을 일본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인 ‘피카츄’로 부른다. 포켓몬스터가 크게 유행했던 지난 2000년대 초 충장로 일대에서 피카츄 인형을 들고 소리를 질러댄데다, 짧게 자른 머리 옆 ‘스크래치’ 모양이 피카츄의 검은 줄무늬와 닮았기 때문이다.

충장로 우체국 입구 계단 지키는 ‘해태 아줌마’도 소꿉친구엔 무서운 존재다. ‘해태 아줌마’는 ‘가이 타이거즈’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 시절 야구장에서 담배를 팔고, 응원을 주도했던 유명인이다. ‘해태 아줌마’는 충장로 우체국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우체국 계단에 앉아있다가, 계단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고향을 질러 쫓아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2. 전남대학교 후문 한 제과점 옆 건물 옥에는 ‘전대 후문 옥쟁이 아줌마’가 있다. 50대로 추정되는 ‘옥쟁이 아줌마’는 건물 옥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가 하면 행인들 차를 향해 험한 욕설도 쏟아붓는다. ‘옥쟁이 아줌마’는 이 과정에서 일부 남성과 심각한 말다툼을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면서 자칫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적 보호를 받아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지경사회의 무관심으로 본의 아니게 시민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변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되고 있다.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할 광주시와 관할 구청, 경찰은 사정은 딱하지만 개인인권침해, 신변 미확보에 따른 책임 관할의 모호성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도울

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충장로 ‘철이’, ‘해태 아줌마’, ‘전대 후문 옥쟁이 아줌마’ 등 정신질환 의심자들이 도심 곳곳에서 고성음은 물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광주시와 구청 등은 관련 민원접수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적 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경우 입소시 본인의 동의를 있어야 하는데다, 관련 민원이나 신고 등이 없는 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자치단체의 해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그 사람의 주소지가 있어야 하지만, 일명 ‘철이’ 등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정신과 전문의 등이 이들에 대해 사회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정신병동에 입원한다는 자체가 개인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광주시와 구청 등 복지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대상자의 등록된 주소지에 따라 관리한다는 입장만을 내세우며, 사실상 이들에 대한 보호의 손길을 놓고 있다. 경찰마저도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행위 등이 ‘인 시위’의 성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장애인협회 이혁 회장은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약자일 뿐 나쁜 사람이 아니다”며 “현재 광주도심을 활보하는 사람들만 최소 6명이 넘는다. 이들이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광주시와 자치구는 심리치료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세월호 선조위 사고해역서

### 2박3일간 침몰원인 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한 실험과 조사를 사고해역에서 벌인다.

세월호 선조위는 “26~28일 2박 3일 동안 방풍도 사고해역에서 세월호 침몰원인

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크게 ▲선조위 비교 실험 ▲조타장치 운용 실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정부 수신율 및 데이터 전송 오류 검증 ▲DGPS와 AIS간 위치 정보 오차 비교 분석 ▲컨테이너 반사파 테스트 등 5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의혹만 남겼던 ‘부영산 유골’ 5·18 암매장 가능성 재조사해야

5·18기념재단의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발굴조사를 앞두고 지난 1989년 광주시 동구 녹동마을 인근 부영산에서 발굴된 유골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1989년 조사에서 법의학 전문가 3명 중 2명은 ‘총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으나, 조사를 주도했던 1명이 이를 끝까지 부정하는 바람에 ‘5·18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드러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총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1월13일 녹동마을 인근 ‘부영산’

### 1989년 조사 법의학자 3명 중 2명 당시 “총상 가능성 높다”

기술에서 머리 뒤쪽에 지름 5cm 크기 구멍이 난 20대 남성의 유골이 주민 제보로 발굴됐다.

부영산 일대는 5·18 당시 7공수와 11공수가 주둔했던 곳으로, 유골과 100여 m 떨어진 지점에서 녹슨 탄환 1500여발과 M1 탄창 30여개가 발견돼 시신과 5·18 연관성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유골을 조사했던 이정빈 당시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조사 첫날 유골을 확인하고 5년 이내의 것으로 단정했으며, 두개골에 난 구멍이 총탄 자국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전홍준 당시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는 당시 “대퇴골 골절, 파자마에 뚫린 구멍을 봤을 때 총상 가능성이 크고 팔뚝과 다리뼈가 영겨있는 등 유골이 해체돼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김종렬 연세대 치의학과 교수도 전 교수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이 교수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부영산 유골’은 의혹만 남긴 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 교수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총상은 대개 총알이 들어가는 부분은 작고 나오는 부분은 훨씬 크다. ‘부영산 시신’은 총상을 입은 게 아니었다”며 “시신 옆에 나무관이 있어 암매장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5·18 연관성도, 암매장도, 총상도 관련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영산 유골’은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보관 중이며, 30여년이 지난 현재 과학 기술이 발달한 만큼 유골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5·18재단 “북 개입설 주장 탈북인사·국정원 유착 규명하라”

5·18기념재단과 광주 오월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탈북인사와 국가정보원의 유착관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재단은 25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보내는 청원서’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중심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계획적이

고도 집요하게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5월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중편 방송에 탈북인사(이주성·임천용씨 등)들이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퍼뜨렸고, 이후 일간베스트·참깨방송·시스템클럽·뉴스타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됐다”며 “탈북이주민

들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있는 국정원의 유언비어 방조 또는 적극적인 왜곡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5·18재단 등은 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탈북인사와 국정원의 유착 관계, 국정원과 중편방송·인터넷 언론의 관계 등이 밝혀져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의 권한조정과 책임자 처벌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5·18 망언 항의 시위 25일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회 등 5월 단체들이 “5·18 북한군 개입설은 팩트”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MBC 사장을 방문해 항의 시위하고 있다. 여수MBC 사장은 이날 5월단체와의 면담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사립중학교 징계 폭탄 논란’ 관련 반론보도

광주일보는 지난 4일자 사회면에 ‘사립중학교 징계폭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 A씨가 법인과 이사장 가족을 상대로 대어금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후 징계처분이 이어지고 자리배치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의 자리배치는 담당 업무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서 교사 본인이 원한 직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자리배치를 한 것이고 징계

또한 대어금환반 소송과 무관한 것으로서 사이버연수 대리인수와 시험감독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처분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대어금환반소송에서 법인은 대상자가 아니며 교사의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고 학교 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금목걸이 훔치려 PC방 업주에 뜨거운 물 붓고 ‘출행량’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을 하던 피시방에서 업주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간 40대 남성이 쇠고랑.

○...2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3)씨는 지난 21일 새벽 0시45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PC방에서 업주인 김모(54)씨가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김씨의 얼

굴에 붓고 옆에 있던 접이식 의자로 내려친 뒤 김씨가 목에 걸고 있던 15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훔친 목걸이를 동구에 있는 한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23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순천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 경찰은 “뜨거운 정수기 물을 뒤집어쓴 김씨는 현재 얼굴과 가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매매가 16억

###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매매가 25,143,000,000  
최저가 14,100,000,000

###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야 114000평 <b>감평가 454,000,000</b> 최저가 454,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b>매매가 520,000,000</b>
▶장성군 장성읍 유령리 유령정촌인근 보전관리지구 입야 900000평 <b>감평가 522,000,000</b> 최저가 522,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b>매매가 1억</b>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b>감평가 273,000,000</b> 최저가 273,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b>매매가 23억</b>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농림지역 도시지역 토지 276평 <b>감평가 83,000,000</b> 최저가 58,000,000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b>매매가 17억</b>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b>매매가 38억</b>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b>매매가 51억</b>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b>매매가 38억</b>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종 가능 <b>매매가 17억</b>
	▶서구 마북동 상무현대신원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b>매매가 3억</b>
	▶광산군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b>매매가 4억1천만원</b> 조정가
	▶광산군 운암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b>매매가 7억5천만원</b>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b>매매가 1억4천</b>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b>3억</b>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입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입야 토지 6714평 <b>매매가 3억5천</b>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b>5억 5천만원</b>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b>4억</b>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